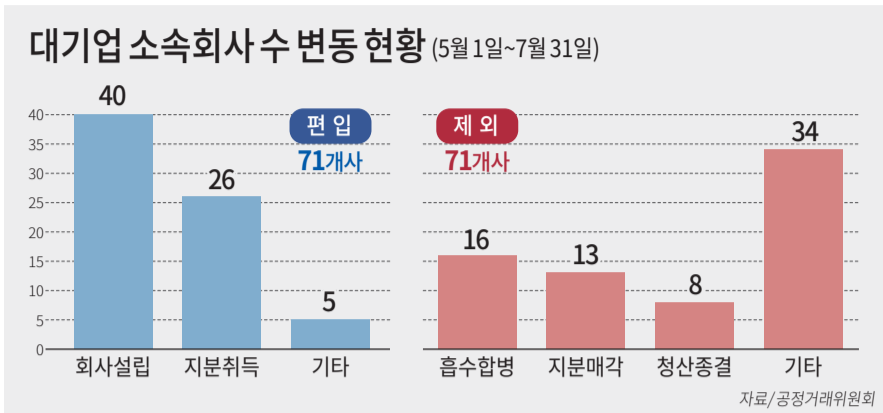


# 대기업, 사업구조 개편 활발... 3개월새 142개 계열사 변동

**공정위 3개월간 소속회사 변동 현황**  
대기업 76곳 소속회사 2886개  
71곳 신규편입·71곳 계열제외  
운송·헬스·패션·미용 사업 증가



최근 3개월간 대기업들의 운송·헬스·패션·미용 사업 진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계열사 편입이 많았던 대기업은 카카오, 한화, 코오롱, KG순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 (2022년 5월 1일 ~ 7월 31일) 발생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2일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76곳의 소속회사는 2886개로 전체 소속회사 수에는 변동이 없었다. 35개 대기업집단이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71개사를 계열편입했고, 28개 대기업집단이 흡수합병과 지분매

각 등으로 71개사를 계열제외했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카카오(8개), 한화(5개), 코오롱(4개), KG(4개) 순이었고,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엘지(12개), 카카오(10개), 금호아시아나(7개) 순이다.

운송, 헬스케어, 패션·미용 분야 지분 인수나 회사설립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스케이(8개)는 공항버스 회사인 서울공항리무진을, 카카오는 주차장 운영 업체인 케이엠파크를 인수하고, 엘에스는 전기차 충전업체인 엘에스이링크를 신설했다.

엘지는 휴피트니스 콘텐츠 업체인 피트니스캔디를 신규 설립했고, 롯데는 건강관리 솔루션 업체인 롯데헬스케어와 의약품 제조사인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신설했다.

코오롱은 패션 제조업체 케이오에이를, 애경은 화장품 제조사인 원씽을 인수했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유사사업 계열사 간 흡수합병 방식의 사업구조 개편도 눈에 띈다.

카카오는 헬스케어 플랫폼 네오젠소프트를 인수한 후 카카오편집기에, 웹툰·웹소설 제작사인 와이낫프로덕션 인수 후 관련 계열사인 삼양씨앤씨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롯데는 빙과류 제조업체인 롯데푸드를 과자류 제조업체인 롯데제과에, 광고대행업체인 모비컴퍼니를 계열 광고대행업체인 엠허브에 각각 흡수합병했다.

케이티는 스팸 전화 탐지·차단 사업을 영위하는 후후앤컴퍼니를 신용카드 결제인증 업체인 브이피에, 프래프톤은

개발사인 비트윈어스를 콘텐츠 플랫폼 회사인 핑스플로우에 흡수합병했다.

친족독립경영이나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많았다.

엘지 소속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 금호아시아나 소속 삼화고속 등 7개사가 친족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각 엘지 및 금호아시아나에서 계열제외됐다.

중흥건설 소속 세진중흥건설 1개사, 농심 소속 에이치씨제16호 등 2개사는 친족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각 중흥건설, 농심에서 계열 분리됐다.

또 에스케이 소속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 지에스 소속 아트벤처스 1개사, SM 소속 현대건축사사무소 1개사는 임원독립경영이 인정돼 해당 집단에서 계열 제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식품부, 추석 전 물가안정 총력... “비축물량 방출하고 할인쿠폰 확대”

**폭염 등 기상악화... 채소가격 강세**  
배추·감자 등 신규 공급기반 마련

추석을 앞두고 밥상물가가 비상이다. 품목별로 양파와 감자 등은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배추와 무는 여름철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이 유동적이다. 축산물은 소비 증가와 사료비 상승, 수입육 가격 동향에 따라 밥상 물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서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5월30일과 7월8일 두 차례 발표한 민생안정대책 중 농식품 분야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농식품 수급과 물가 안정에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개월 연속 6%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농식품 분야 농산물은 6월 1.6%에서 7월 8.5%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축산물은 6월 10.3%에서 7월 6.5%로 상승 폭이 둔화됐고, 가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대관령원예농협 채소사업소를 찾아 배추 출하조절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식품과 외식은 각각 7.9%에서 8.2%로, 8.0%에서 8.4%로 지속 상승세다.

농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7월 초 이른 폭염과 장마 등 기상 여건 변화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채소류와 감자 등 노지작물의 생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농산물 가운데 쌀, 과수, 시설 채소 등의 공급은 안정적이나, 노지 밭작물 중 양파, 감자 등은 생산 감소 영향으로

당분간 가격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품목별 가격과 유통량 등을 고려해 비축물량 방출, 수입물량 도입 등을 추진한다.

품목별로 배추와 무는 여름철과 추석 성수기 수급불안에 대비해 비축을 추진 중이다.

특히 수출감치용 배추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김치업체가 도매시장 등을 통

해 수출감치용 배추를 확보하는 경우 배추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우려가 있어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김치수출용 물량에 한해 약 1600톤을 수입하고 10월까지 김치업체에 공급해 국내 수요 증가를 완화할 계획이다.

축산물의 경우 국내 공급물량 확대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최근 국제적 인플레이션, 환율 상승 등으로 수입 가격이 상승한 수입산 축산물의 국내 소비자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한 할당관세 등을 추진한다.

닭고기는 사료비 상승과 도축마릿수 감소 등으로 수급 및 가격이 불안정함에 따라 주요 계열업체와 함께 병아리 입식물량을 계획보다 2~3%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축산계열화사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계란은 공급여력은 있으나 사료비 상승 등으로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임에 따라 소비자쿠폰을 지원하고 사료구매 자금 지원에 나선다. 하반기엔 계란가공품 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총 6720톤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축산물 할인쿠폰 확대,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추경(390억원)과 예비비(300억원)를 통해 대폭 확대한 농축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통해 농축산물을 연중 할인 공급하되, 유통업체 자체 할인 행사 연계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추석 성수기에 사업비 집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배추와 감자 등 생산 감소가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재배면적 확대 등 신규 공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배추는 향후 7월 하순부터 8월 중에 배추 재배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재배물량을 수매하는 조건으로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계약 물량은 9월 말부터 수확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100ha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현재 물가 상황이 엄중한 만큼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포스코그룹 계열사 5곳, 中企 대상 ESG·소부장 기술나눔

**산자부 기술나눔 참여 희망 기업 접수**

포스코그룹 계열사 5곳이 ESG·소부장 기술 561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도 산업부-포스코 기술나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8월3일~9월2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나눔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25개 대기업·공기업 등이 기술제공 기관으로 참여했고, 1154개 기업에 2577건의 기술을 이전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케미칼,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등 5개사가 기술나눔에 참여하며, 환경, 에너지, 소재, 부품, 장비 등 5개 분야 561건의 기술을 공개한다. 지난 2017년부터 기술나눔에 참여하고 있는 포스코그룹은 작년까지 241개 기업에 56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했다.

포스코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들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성능 개선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페플라스틱 선별장비 개발 업체인 A사의 경우 플라스틱 선별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9년 포스코로부터 ‘정전기를 활

용해 물건을 선별하는 기술’을 이전받았다. 이후 R&D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부 R&D개발청 사업 지원과 제로도 선정돼 국내 최초로 정전기를 활용한 플라스틱 선별기를 개발했다. 올해 중 자사 공장에 설치할 예정이며, A사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포스코로부터 기술나눔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산업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게시된 공고에 따라 9월2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통해 10월 중 기술이전 대상 기업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대형마트서 폭염예방 수칙 확인하세요”

**안전보건공단 폭염예방 캠페인 진행**

안전보건공단이 이달부터 대형마트와 손잡고 ‘물, 그늘, 휴식’의 3대 폭염 예방 수칙을 알려주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2일 공단에 따르면 전국 이마트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생수코너에서 폭염 예방 3대 수칙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생수병 묶음 포장지에 적힌 안전 메시지를 보고 폭염 예방을 실천하게 된다.

이마트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 매장에서 안전실천 메시지가 적힌 한정판 생수를 판매한다.

아울러, 공단은 이마트 근로자들의 작업환경,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도 벌인다.

공단은 오는 11일 이마트 성수점에 안전보건전문가를 보내 하역장과 운반장비 등 물류작업 전반의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근로자와 시민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서의 공동 캠페인 전개로 폭염 예방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의 협업으로 일터와 국민에게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